

목포, 코로나 확산세 심상치 않다

8월들어 39명...전체 확진자 18% 외국인 선원발 확진자 지속 발생 일손 없어 방역 손봐 불안감 고조

코로나19 확진자가 8월 들어서만 39명이 발생하는 등 목포시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지난해부터 16일 현재 목포시 확진자는 총 217명이다. 하지만 8월 들어 불과 16일 만에 전체 확진자 수의 17.9%인 39명이 확진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난데는 지난 달 29일 무더기로 12명의 외국인 선원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선원 발 확진자가 양산된 데 따른 것이다.

목포시는 근해어업 선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10일 입항 당일 및 출항 72시간 전 감염검사를 마칠 것과 입항 검사 후 7일 이내 출항을 금지하는 한편 조업 중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목포시가 고민에 빠졌다. 사실상 예방접종에 보편적 모든 직원이 매달려 방역 활동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네자리 숫자를 찍은지 42여일 째이고 급기야 2000명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목포의 경우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특히, 목포 농협 로컬푸드 매장은 유동 인구가 하루 1000여명이 넘는데도 발열을 체크하는 인력과 기기 설치마저 되어 있지 않

아 확진자 동선이 겹칠 경우 견잡을 수 없는 사태로 확산될 공산이 크다. 그런데도 공공시설과 유동인구가 잦은 시설 점검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할 보건 당국의 손길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단순히 안전문자를 통해 확진자 발생보고와 집단 취식, 모임 자제만을 호소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이 20여 개월 동안 코로나 방역과 예방접종에 휴가도 반납하고 총매진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하고 타지역 방문, 불필요한 사적 모임과 외출 등의 자제를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영광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이 매립쓰레기 전수조사 등을 주장하며 생활폐기물 반입을 막는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군 쓰레기 대란 20일...폭염에 악취 고통

주민들 환경관리센터 반입 저지

영광군 환경관리센터의 생활쓰레기 반입 거부 사태가 20일을 넘어서면서 영광군 전역에 또다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지난 2007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환경관리센터 내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20t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 건설됐지만 최근 들어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38t 정도로 늘면서 하루 20t가량의 나머지 쓰레기는 매립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매립장은 악취와 함께 한겨울에도 파리 떼가 기승을 부릴 정도고, 비가 내리면 침출수가 인접한 바다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 이에 무차별적인 매립에 반대하는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이 매립쓰레기 전수조사 등을 이유

로 환경관리센터에 생활폐기물 반입을 저지하면서 영광군 전역에서 배출한 하루 38t가량의 쓰레기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일반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과 식당 등에서 별도로 분리수거해온 음식물쓰레기 또한 한 처리가 불가능해 지난해 18일부터는 일반 쓰레기봉투에 혼합배출하고 있어서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수거장과 거리마다 악취와 오·폐수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생활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때마다 환경관리센터로 진입이 막히면서 임시조치로 범성면의 임시야적장에 잠시 쌓아뒀다가 다시 수거해 처리해 왔으나, 이곳 역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7월 말부터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영광=이종훈 기자 jylee@

한 여름에만 피는 새우난초 보러 오세요

신안 자은면 1004뮤지엄파크 9월 12일까지 자생식물 전시회



신안군이 오는 9월12일까지 자은면 1004뮤지엄파크 새우난초전시관에서 한 여름에만 피는 새우난초(사진) 자생식물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는 지난 7월말 신안갯벌의 세계유네스코 자연유산 확정을 축하하고, 한반도 보호종인 새우난초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새우난초는 그리스어의 Kalos(아름답다)와 Anthos(꽃)의 합성어로 아름다운 꽃의 여원을 담고 있다. 지구상의 식물 중 가장 진화했다는 난과식물의 한 종으로 세계적으로 200여종이 자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우난초, 금새우난초, 한라새우난초, 신안새우초, 다도새우난초 그리고 여름새우난초가 자생한다. 특히 여름새우난초는 7-9월 여름에 꽃을 피우며, 신아(新芽)에서 꽃이 오르는 다른 새우난초종과는 달리 딱잎(子葉) 속의 구경(球莖)에서 올라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봄에 피는 새우난초 종류는 많지만 한여름에 피는 새우난초는 여름새우난초만 있다"면서 "문화예술이 꽃피는 1004섬 신안에 서 관람객이 휴식의 시간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 아동학대 신속 대응...전담 공무원 배치

해남군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해남군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으로 진행된 아동학대 현장조사·응급조치 등을 군에서 직접 담당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10월부터 활동한다. 신설되는 아동학대 예방 긴급전화로 통해 학대 신고접수 직후 현장조사 외에도 피해아동의 보호·사례관리를 위한 학대 행위자 조사, 피해아동 보

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군은 2015년부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으로 학대피해 아동 보호조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전담 공무원 배치로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에 한층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해남군·해남경찰서·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최근 1년 이내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거나 피해아동으로 수사된 경력이 있는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해 3회에 걸친 합동점검을 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올 여름 휴가철 서남해안 연안여객선 이용객 29만8천명

코로나 영향 작년보다 4% 줄어

여름 휴가철 전남 서남해안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29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휴가철 특별수송 기간(7월 23~8월 10일) 전남 서남해안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29만8000명, 차량은 9만6000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가량 줄었다.

기간 중 전국적으로 코로나 변이 등 감염 재확산 및 완도군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확진자 발생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입자대교 개통에 따른 항로 폐업(지난해 2만1000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항로별로 살펴보면 목포권은 18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가 늘어났으며 목포-제주 항로가 4만9000명(144%), 목포-홍도 2만4000명(96%), 목포-남강-가산 2만6000명(103%), 목

포-하의-신의 2만1000명(104%)이며, 완도권은 1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0%가 줄어든 가운데 땅골-산양 3만7000명(107%), 화흥포-소안 2만3000명(72%), 완도-청산 2만1000명(82%)으로 나타났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올 하계 휴가철 특별수송 기간 중에는 비교적 양호한 기상상황과 함께 단 한건의 사고 없이 원활한 수송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진도군 식품·공중위생업소 집중 방역 점검

진도군이 오는 22일까지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집단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집중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방역 점검 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다방·카페, 유흥주점, 숙박업소, 목욕장, 아·미용업 등 총 1120개소이다. 군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한 후 소독·실내 환기 실시, 080 안심콜, 출입자 수기 방역, QR 체크 등 출입 인종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

수, 외국인 고용 사업장 주 1회 진단 검사 의무, 위생업소 업종별 준수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전남도, 진도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해 하고 있다. 또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함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영 중지, 고발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